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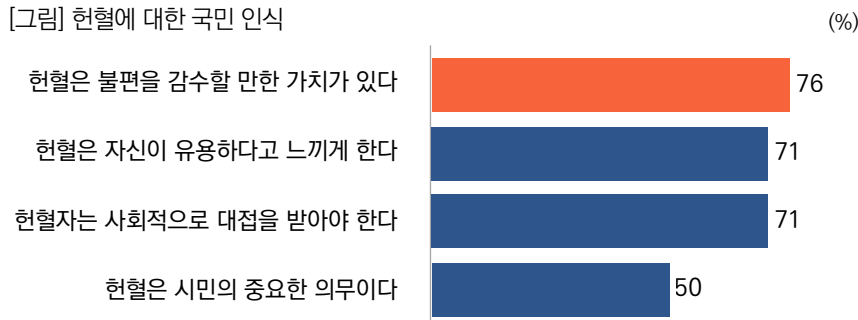
1. 국민 헌혈 인식

작년 말 15개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모임인 '사감과섬김'에서 당시 헌혈 어려움이 가중되던 때 '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'을 벌여 4달 사이에 1만 명이 넘게 헌혈에 동참했던 일이 있었다. 최근 정부에서 '국민 헌혈인식조사'를 실시했는데 한국교회의 헌혈 인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.



우리국민, '헌혈은 불편해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다' 7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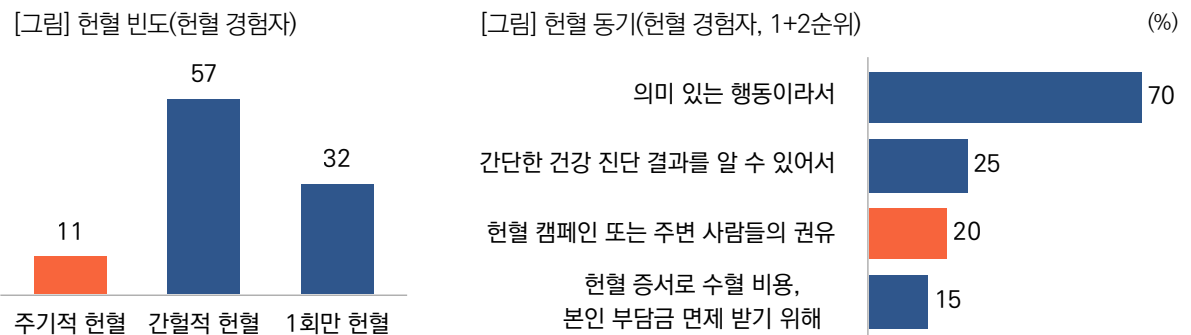
- 코로나로 인한 감염 위기의식이 높아지며 올 초에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이 3일치 정도로 혈액 위기였던 적이 있었다.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76%는 '헌혈은 불편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다'고 응답해, 헌혈의 높은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.
- 또한 헌혈에 대해 '헌혈은 자신이 유용하다고 느끼게 한다' 71%, '헌혈자는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아야 한다' 71%, '헌혈은 시민의 중요한 의무이다' 50%로 응답해, 헌혈에 대한 국민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.



*자료 출처 : 보건복지부, '국민 헌혈 인식도 조사', 2021.10.26.(전국 만 16-69세 남녀 1000명<헌혈 경험자 500명, 미경험자 500명>, 2021.8.31.-9.6)

● 헌혈자 중 주기적 헌혈 10명 중 1명 정도(11%)에 그쳐

- 헌혈 경험자의 헌혈 빈도를 보면, 주기적 헌혈은 10명 중 1명가량(11%)이며, 1회만 헌혈한 비율은 경험자 3명 중 1명가량(32%) 되는 것으로 나타나, 헌혈이 지속적인 활동으로 인식 되지는 않고 있었다.
- 헌혈 동기로는 '헌혈 캠페인 또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'가 20%로 나타났는데, 헌혈자 5명 중 1명 정도가 헌혈 캠페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, 교회의 헌혈 캠페인 전개가 대사회 공적 역할의 한 예로 검토될 수 있다.



*자료 출처 : 보건복지부, '국민 헌혈 인식도 조사', 2021.10.26.(전국 만 16-69세 남녀 1000명<헌혈 경험자 500명, 미경험자 500명>, 2021.8.31.-9.6)